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7가지 장벽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다. 이것이 공평의 원리이다

(겔 36: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지니라”

(렘 33:2-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들은 있기 때문이다.

1.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약4: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핑계를 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다.

2. 이기심 (욕심)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이란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3. 알고 있는 죄

(시66: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품는다’는 것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거나, 전에 지은 죄를 즐겨 상상하거나,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죄들이 남아 있도록 용납하지 말라. 자백하면 정결하게 해주신다. (참고 요일 1:9)

4. 의심하는 마음

(약1:6-8)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연약한 믿음이나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 중 아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심”은 “나누어진 마음”을 뜻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거나 삶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5.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잠 28:9)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도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6. (즉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낙심하는 마음

(눅 18:6-8)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기도 응답의 장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안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7.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말씀하셨다. “용서해야 너희 잘못을 용서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나눔질문)

1.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일곱 가지 장벽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생활에서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서로 진솔하게 나누어보십시오.

2. 다음에 주어진 실례를 읽고 받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 있는 비이커 속에 개구리 한마리를 넣고 그 밑에 불을 켜서 서서히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온도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아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 개구리가 뜨거운 속에서 푹 삶아져서 죽었습니다. 개구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뛰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것 입니다.”